

# 프로야구 어린이 모자서 발암물질 검출

### 일부 프로스포츠 모자서 폼알데하이드 나와...기준치 최대 2.3배 ↑

### 기준치 초과한 pH 성분도 검출...92% 제품 '사용 연령' 표시 누락

SK 와이번스, 키움 히어로즈 등 일부 프로야구단 어린이용 모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군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와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삼성 선더스,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등 프로농구와 전북 현대 등 프로축구단 어린이용 모자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2.3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암과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프로야구·농구·축구 구단들은 직접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린이용 모자를 판매하고 있지만 절반가량(46%)의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또한 92%는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정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홈구장 매장에서 판매 중인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6개 제품(46%)에서 허용기준을 최대 2.3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프로스포츠 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라이선스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모자 13개(프로야구 10개·프로농구 2개·프로축구 1개) 제품이다.

이중 5개 제품(3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75µg/kg)을 1.2배~2.3배 초과한 92~176µg/kg가 검출됐다.

프로야구 모자에서는 △SK 와이번스 베이스볼캡 모자 벨크로(썬제일인터내셔널) △키움 히어로즈 일반형 모자(인터파크에서 각각 92µg/kg, 119µg/kg의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프로농구 모자에서는 △서울 삼성 선더스 아동용 스냅백(p.sports)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2018-2019시즌 아동용 스냅백(p.sports)에서 각각 164µg/kg, 117µ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프로축구 모자에서는 전북 현대 아동스냅백(썬제일인터내셔널)에서 176µg/kg의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돼 있었다.

pH도 2개 제품(15%)에서 허용기준인 4.0~7.5pH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8.2~8.4pH가 검출됐다. pH는 산성 또는 알칼리 성분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산성이 높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 성분이 짙어진다. 어느 쪽이든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프로야구 모자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벌룬 스냅백 키즈(썬제일인터내셔널)에서 8.4pH가 검출됐으며, 프로농구 모자에서는 서울 삼성 선더스 아동용 스냅백(p.sports)에서 8.2pH가 나왔다.

소비자원 조사에 적발된 판매·유통업체 5곳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와 교환 등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3개 제품 중 어린이용 제품이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한 제품은 12개(92%)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 이상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아동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등 두꺼운 팬텀을 거느린 프로야구단 어린이

용 모자가 대거 포획됐으며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등 4개 제품은 필수 의무표시 사항인 제조연월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 중 11개 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는 사용연령 표시를 표기하겠다고 회신했으며, 다른 1개 제품은 판매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파란 하늘길을 걷다 절기상 차서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한 시민이 여색길을 가보고 있다.

## 8월 초등학교 교통사고 하루 37건...“신학기 주의해야”

최근 5년 간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초등학교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인 21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평균 40.1건의 초등학교 교통사고가 벌어져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등·하교 시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1146건으로 일 평균 37건이었으며,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21일~31일)에 발생한 사고는 평균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다.

사고발생 시간대는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1530건, 10.5%) 보다는 하교시간인 오후 2시~4시(3526건,

24.1%)와 오후 4시~6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했다.

한편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건, 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 대체로 운전자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키가 작아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좁은 골목길 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또한 도로를 건널 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손을 들고 건넌다.

아울러 운전자는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보호자가 데리러 가기 어려운 학교 시에는 아이 혼자 다녀야 하는 만큼 평소 안전한 통행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1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전자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위해 2016년부터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방식을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만 한정해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슈 판결

## ‘면접점수 조작’ 광주은행 채용비리 간부 4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 광주지법 “일반지원자에 박탈감...죄질 좋지 않아”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1년6개월,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에 응시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자 9명이 합격으로 바뀌었고, 합격자 12명이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면접에서는 1명이 추가로 합격하는 등 최종적으로 5명이 점수조작으로 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 등 2명은 2015년도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을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 등은 채용관리와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인사부에 있고,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 일부를 조정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도 딸 채용과 관련해 정박을 하지 않은 만큼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주은행의 경우 채용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접 점수와 공개채용 요건 등을 볼 때 각 전형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과 관련된 면접은 보호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면접 후에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면접관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민 것은 채용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합격 여부가 뒤바뀐 사람들과 살펴보면 성별과 대학 등을 고려했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딸 채용과 관련해 친분이 거의 없는 면접관에게 연락을 했고, 이 면접관은 C씨의 딸에게 면접을 봤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내부직원들에게도 부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C씨가 2차 면접에 들어간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데 A씨 등이 이를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은행에서 처벌해달라고 하지는 않은 점, 다른 사람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심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